

# 광주박물관 명사특강 인기 '짱'

### 대학교수 등 초청해 월 1회 문화재 강의 관람객 1,690명...대표 문화프로그램으로

“두 개의 독을 맞붙여 만든 독무덤(瓮棺묘)은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무덤 양식입니다. 이 때문에 독무덤이 발견된 유적은 이 시기에 조성됐을 확률이 높은 거죠.”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문화재를 설명하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의 '명사 특강'이 지역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재는 관련 용어가 어렵고 시대가 다양해 일반인들이 낯설어 하는데, 광주박물관의 '명사 특강'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석기, 신석기시대, 고인돌 등을 자세히 설명해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차례 열린 '명사 특강'에는 모두 1천 690명이 다녀가 매회 평균 19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문화재 전문 분야 강의에 일반인들이 대거 몰려든 것은 적지 않은 성과이다.

이처럼 '명사 특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유명 인사 초빙과 다양한 프로그램 덕이다.

조선대학교 이기길 사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안승모 교수,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이영문 교수,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임영진 원장, 동방문화재연구 김성구 원장 등 9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이들은 호남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유적들을 통해 구석기시대의 인류고고학적 배경과 특징 등을 비롯해 마한문화의 성장과 호남, 조각으로 본 호남의 불교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영산강유역은 대형 옹관 고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독특한 고분문화와 고대사회의 생활방식의 특징 등을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립광주박물관의 '명사 특강'에서 관람객들이 문화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매회 가족과 함께 수강한다는 주부 양영애(35·북구 양산동)씨는 “문화재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명사 특강에서 배운 내용을 나중에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좋았다”고 말했다.

'명사 특강'의 성공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도 크게 증가. 올해 전체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2만여명이 늘어 26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중 관장은 “박물관은 시민과 호흡하는 문화기관이다”면서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오후 3시 광주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김신중 교수를 초청해 '남도 가사문학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를 주제로 올해의 마지막 '명사특강'을 갖는다. 이날 특강에서는 가사문학에 큰 족적을 남긴 면앙정 송순과 송강 정철 등의 작품에 대해 살펴본다. 문의 062-570-70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국악에 담은 빛고을 광주

### 시립국악관현악단 '빛 빛 빛이 되라 하시네' 무대에

### 26일 문예회관...판소리·가수·합창단 등 100여명 출연

“국악으로 풀어낸 빛고을 광주.”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재로 한 대형 국악 작품이 공연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심인택)은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빛 빛 빛이 되라 하시네'(이하 '빛빛빛')를 무대에 올린다.

국악 교성곡(하나의 줄거리를 몇 개의 악장으로 나누어 구성된 대규모 성악곡)인 '빛빛빛'은 시인 송광은씨의 시에 '한국의 사계', '춘산에 불는 그 불' 등을 만든 작곡가 김삼곤씨가 곡을 붙인 대형 작품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기획됐다.

국악관현악단은 지난 3월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광과 무등산에 얽힌 이야기를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춘산에 불는 그 불'을 통해 '광주'를 조명한 바 있다.

작품은 '어둠과 빛' 등 모두 5악장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를 상징하는 어머니산 '무등산'이 무대 뒤 화면에 비쳐지면 소리



의 여명을 밝히는 대고(大鼓)가 울리면서 관현악 서곡이 연주된다. '빛고을 광주 내력을 아는가'로 시작되는 아니리가 인상적인 1악장 '어둠과 빛'을 시작으로 광주 칠석동 고싸움 놀이와 풍겨온 풍물 장단이 어우러진 '세상의 모든 빛'과 정의 앞에 의연했던 광주의 정신을 형상화한 '빛속에 휘감겨라'가 연주된다.

이어 광주의 찬란한 미래를 노래하는 4악장과 5악장 '빛의 잔치'와 '빛이 되게 하시네'가 울려 퍼진다.

'빛빛빛'은 국악 관현악곡에 다양

한 장르의 성악곡이 어우러진 웅장한 작품이다. 정통 소리꾼, 성악가, 그리고 대중가수가 함께 출연하는 것도 이색적이다.

소리꾼 박복희(춘향극대전 판소리 대통령상 수상) 양신승(전남도립국악단원), 바리톤 엄종호(광주시립합창단원), 대중가수 장소영씨가 주역으로 출연하며 전주판소리합창단, 전남대판소리합창단 60여명 등 총 100여명이 함께한다. 티켓가격 1만원, 5천원. 문의 062-510-93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이돈홍씨 미술부문 한국예술상



원. 담양 출신인 학정은 약관의 나이에 서예에 입문, 송곡 안규동 선생을 사사했으며 대한

### 계간지 '열린시학' 주관

### 시 부문 성찬경씨 수상

서예가 학정 이돈홍(62·학정서예원장·사진) 선생이 계간지 '열린시학'이 주관하는 제2회 한국예술상 미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지난 2007년 중국 북경 전시 등을 통해 한국 서예를 세계에 알렸고,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학정체'를 만들어 서예 발전에 이바지 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시 부문에서는 시인 성찬경(79)씨가 선정됐다. 상금은 각 300만

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국제서예에술연합 한국본부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젊은 팝아트 작가들의 'POP'전

### 시립미술관 내년 2월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은 2010년 2월21일까지 지역의 젊은 팝아트 작가들을 초대한 'POP'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신도원, 김혁, 이진상, 김해진, 이조흥씨 등이 참여해 대중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팝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회화, 판화, 한국화, 설치, 비디오아트와 만화, 영화, 동화, 애니메이션 등 대중매체를 결합

시킨 개성 강하고 톡톡 튀는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신도원씨의 '로봇 태권'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그림이 겹치고 반사되는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이며, 음악을 통해 팝아트와 비디오아트의 장르 간 혼성을 보여준다.

또 김혁 'Jocker'시리즈는 영화 배트맨에 등장하는 조커를 주인공으로 사회 혼돈과 인간의 욕망을 다뤘다. 문의 062-222-357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혁 작 '관능적 제설작업'

## 대학 연극 축제

### 24~28일 호남대소극장 등서 열려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가 주최하는 제 3회 대학연극축제가 24~28일 오후 7시30분 호남대소극장 등에서 열린다.

24일 첫무대를 장식하는 팀은 호남대다. 다양한 소재의 창작 뮤지컬을 발표해온 호남대는 김균형씨가 희곡을 쓴 '환경뮤지컬 누굴까?'를 선보인다. 송원대학교(25일·문예정터)는 '갯초', '페인', '라이언 킹' 등 유명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뮤지컬 갈라 빅뱅'을 선보이며 광주교육

대(26일·호남대 소극장)는 서로 애인을 둔 부부의 최후를 해프닝을 그린 까롤레티 작 '누가 누구'를 공연한다.

또 조선대와 전남대는 영화감독으로도 유명한 장진의 희곡을 무대에 올린다. 조선대(27일 문예정터)는 장진 식 유머가 돋보이는 '허탕'을, 전남대(29일 오후 5시·씨다아트홀)는 시체 검시실에 모인 다섯명의 여자 시체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풀어놓는 '아름다운 사인'을 무대에 올린다.

그밖에 동신대(28일 오후 5시·씨다아트홀)는 '왕의 남자'의 원작인 '이'의 희곡작가 김태웅의 작품 '달빛 유희'를 선보인다.

축하리셉션은 이번 축제 집행위원장인 연극배우 최종원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오후 6시30분 호남대 소극장에서 열린 예정이다. 티켓 가격 1만원. 현열증을 기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골프세상에서**  
당신만을 위한 클럽을 만나보십시오.

**골프세상 상무점 11월 5일 OPEN**

062-385-0689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231-3번지 1F

**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

8월 70% 할인

35% 할인

062) 252-2900